

# 01

## 9월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참가 현황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9월 개최된 축산 관련 축제에 참가하여 오리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오리고기 시식 및 전시, 할인 판매 행사 등 오리소비 촉진활동에 적극 나섰다. (관련기사 : 현장스케치)

행사명	기간	장소
2015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9.3(목)~9.5(토) 3일간	일산 킨텍스
2015 국제축산박람회	9.9(수)~9.12(토) 4일간	대구 엑스코
2015 세계양봉대회	9.15(화)~9.19(토) 5일간	대전 컨벤션센터
제3회 우리농축산물한마당축제	9.21(월)~9.24(목) 4일간	서울 광화문광장

# 02

## 한국오리협회, '오리 사육분과위원회 워크숍' 개최



(사)한국오리협회는 9월 14일(월)부터 15일(화) 양일간 광주광역시 호텔프랑스에서 '오리 사육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을 비롯하여 마광하 사육분과위원장, 각 지회 및 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 2일 AI역학조사위원회 논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역학조사위원회 방역조치 권고사항 및 관련 내용을 함께 짚어보고, AI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 ('15. 10월 ~ '16. 5월)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박사(동물보호과장, 前 질병진단과 수의연구원)가 '오리 AI 역학적 위험요소 방역 관리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워크숍 참석자들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회'를 벌였다.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은 "AI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 시작과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오리농가 입식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각 농가는 시·군에

입식 전 검사 신청이 최소 15일전에 이루어져 입식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03

##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부대행사 ‘오리 사양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지난 9월 10일(목), 2015 대구국제축산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축산관련 학술세미나에서 ‘AI 예방 및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15. 10월 ~ ‘16. 5월)이 도래함에 따라 AI예방과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오리 사육환경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영국 체리밸리사 Dr. Nick Lynn의 ‘AI 예방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방안’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전남대학교 선상수 교수의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방안’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세미나는 오리 산업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